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알림**

1. 오늘 예배는 창립 43주년 기념예배로 드리며, 2024년도 각 부서 임원들, 사역원, 및 신령직 직분자의 임명식이 있습니다.

• **새가족 환영회 안내**

1/20 토요일 오후 5시,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새가족분들께서는 바나바사역팀의 안내를 받으셔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박스광고참조)

• **7080 시니어 모임**

2월 11일(주) 오후 1시, 설날을 맞이하여 가정 사역 주관으로 7080 시니어 그룹 모임을 갖습니다.

• **한글학교 개강 안내**

1/20(토) 한글학교 개강, 시간: 오전9시 - 12시
*문의- 김 경 집사 954-328-5187

• **교회 관리/미화 사역**

교회 관리사역부에서 주일 예배 준비를 위한 교회관리 및 청소사역(본당, 애찬실)에 함께 하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청소/관리 사역은 매주 토요일에 하며, 사역이 가능한 날을 정한 후 시행합니다. 준비된 양식에 싸 인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플 사랑 특별 헌금**

남플 장로회에서는 팬데믹 이후 성전건축하면서 얻은 융자금 상환액이 급상승하여 이웃과 열방을 향한 사역에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올 한 해, ‘남플 사랑 특별 헌금’을 시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 일에 참여하실 분들은 준비된 양식을 기입 하신 후 봉헌시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 **세금보고를 위한 헌금 내역서 안내**

세금보고를 위한 2023년도 헌금내역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 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신년 대심방**

2024년 1월-2월, 신년 가정/사업체 대심방을 실시합니다. 특정 일에 심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조흥숙 사모

교육부 소식

• 유아 유치부 초등부 소식

1. 유아 유치부 큐티학교 오픈! 유튜브 "남플유아유치부" 채널에서 ‘예수님 이랑 나랑’ 큐티가 매일 진행됩니다.

• E.M. (English & Multicultural)

1. Youth & E.M. will worship God together at 10:30 am in our Education Building.

예배 및 모임 안내

• **한어권 장년 모임**

예배(Sunday Service) / 1부-8:00 am, 2부-10:30 am
<수요 말씀 묵상> (Q.T) (Wednesday) / 7:30pm
새벽기도회 / (화)~(토) 6:00 am.

• **English Ministry (영어예배)**

주일예배 (Sunday Service) / 10:30 am
수요 기도회 (Wed. by Zoom) / 7:30 pm
제자훈련 (Thur./Biweekly) / 6:30 pm

• **Youth (중고등부)**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FNL (금요모임) / 7:00 pm

• **Sunday School (주일학교)**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예수님이랑 나랑> / 월-토

섬기는 사람들

- EM-다문화.Youth/ 김학섭 목사, 유초등부/ 이지연 전도사
- 유아유치부.미디어/ 윤성민 전도사
- 아이티 선교센터/ 김승돈/김미애 선교사
- 성가대/ 1,2부. 지휘- 심성애, 반주- 윤미아
- 경배와 찬양/ 리더- 유철우, 키보드- 김선영
- 오르간/ 1,2부 조흥숙
- 교회사무/ 김숙형
- 동시통역/ 안현정 안진석 윤수미 김학섭
- 방송.미디어/ 주일- 김동규 양재일 윤훈로 이정석 박우성
새벽- 이운섭 정철조 김학섭

지난주 헌금 통계 : 총 합계 \$31,532.00

일반헌금 \$16,882.00	심일조: \$8,310.00	신년감사: \$3,670.00
	주 일: \$1,345.00	감 사: \$620.00 기 타: \$2,937.00
건축헌금 \$2,500.00	약 정: \$2,500.00	
선교헌금 \$12,150.00	속 화: \$150.00	중남미: \$12,000.00

**** 온라인 헌금/우편 송금 내역은 다음주 통계에 반영됩니다.**

제43권 02호
2024년 1월 14일



2024년도 표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12:2)

남플 G.P.S

God's Word
Prayer
Service

담임목사

이철구
Rev.Chulgoo Lee

남부 플로리다 **감리교회**
South Florida

Global Methodist Church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엡5:19)

*P. the Poor in Spirit
O. Oneness in Lord's Hand
E. Encouragement in Christ
M. Mission-oriented Life*

남부 플로리다 교회는
아름다운 시(P.O.E.M)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6501 W. Commercial Blvd. Tamarac, FL 33319

교회(954)597-0735. 목사관(248)227-5400

mcosf.org

< 주현절 둘째주일 > 예배순서

1부(8:00am) 2부(10:30a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인도자 Presider

▲ 경배찬송 Opening Hymn / 9장

▲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 성시교독 Responsive Reading/ 43번

주의 이름 높이며,

생명 주께 있네, 예수 예수,

우리 보좌 앞에

▲ 영광송 Gloria / 3장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같이

찬송 Hymn /288장 (통204)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기도 Prayer / 이운섭 장로

기도 Prayer/ 윤기향 장로

찬양 Choir / 호산나 찬양대

찬양 Choir / 할렐루야 찬양대

- 주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

- 주님 나라 이루게 하소서 -

교회소식 Announcement /

영상 광고

▲ 봉헌 Offering /

다같이

성경봉독 Scripture / 빌립보서(Phil) 2:19-24

<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

Think about God's work!

설교 Sermon / 이철구 목사 (Rev. Chulgoo Lee)

▲ 파송찬송 Closing Hymn/ 595장 (통 98) **나 맡은 본분은**
(A charge to keep I have)

▲ 축도 Benediction / 이철구 목사 (Rev. Chulgoo Lee)

▲ 표에는 일어섭니다.

2024년 1월 예배를 섬기는 분들

	예배 안내	헌금/안내	성경 봉독	대표기도	친교봉사
오늘 1월 14일	1부	총성교구	담당자	이운섭장로	은혜교구
	2부			윤기향장로	
다음주 1월 21일	1부	총성교구	담당자	임승준집사	총성교구
	2부			유철우집사	

금주의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막8:33)

*인용성구/ 막8:33, 대상17:2, 딤후1:5,
왕하5:11, 말1:2,3

[새가족 환영회 안내]

• 일시: 1/20(토) 오후 5시

친교실에서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새가족분들과 속회원,
속장, 인도자, 장로님, 권사님들을 초대합니다.

새가족분들께서는 바나바사역팀의 안내를 받으셔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7월 - 2024년 1월까지 등록하신 분

[김정배 조해리/박미송 김종수/루카야김 (자녀:민하,미르)
김기장/한동희 (자녀:지민) 안드레아(Andrea Guarguata)
김조셉/Thais Kim (자녀: Jaylin)]

• 음식및 데코레이션 등 봉사하실분 volunteer 부탁드립니다.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새가족 환영회에 여러분을 초대 합니다 ~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환영하고 사랑 합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살면서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널리 알려진 사회학자, Ithiel de Sola Pool은 그 수를 대략 3,500명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는 사람의 수명이 유한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다는 전제하에 이런 추정을 한 것인데, 우리가 만나는 이들이 다 깊은 대화를 친구 사이로 발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동적인 시가 하나 있는데, 함석헌이 쓴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입니다. “만 리 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망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너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말이야’ 하고 믿 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탕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 만은 제발 살아다오’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이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일출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 광야 같이 메마른 인생에서 이런 친구를 만나 우정을 나누는 것은 가장 큰 행복일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요15:15).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길 날이 가까워 왔을 때, 하나님께 들은 모든 비밀을 알려셨습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당신이 그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제부터 그들을 종이라 않고, 친구라고 하 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주님과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나누어 가진 사이가 되 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벗은 천 명의 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임 이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했는데, 주님은 당신이 떠난 후 제자들이 직 면하게 될 인생의 풍랑을 내다보시며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당 신이 택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며 일이 되게 하십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평소처럼 양을 치던 모세에게 주도적으로 임하셔서 당신이 이루실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당신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일을 맡기겠 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일을 자기 힘으로 다 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 나이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사양했고 애굽에 있는 그 백성도 팔십이나 된 자신을 지도 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출4:13). 이에 하나님은 당신이 동행하실 것이라며 다시 강권하며 바로에게 보내 려 하셨는데, 이는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 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빛나게 했던 세상 배경이 한 순간에 사라지고, 자 기에게 힘을 주었던 인맥의 끈도 끊어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삶의 추락 속에서 그에게 남은 세상 것,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없었을 것입 니다. 그에게 남은 유일한 것은 어려서 유모에게 들어서 자의식 속에 남아있던 하나님 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이들은 모세의 심본지 일 정도만 삶의 추락을 경험해도 세상을 등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삶의 급전직하 순간, 그 중 안 들어서 알던 하나님을 일상에서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이 삶의 밑바닥을 버쳐주시는 은혜를 누렸기에 삶을 지속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듣 고 선포 따르지 못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거부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십년 전과 달리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고백이요 겸비한 자로 변했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 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점을 보시고 먼저 그에게 당신의 마음을 열어 보이시고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기가 좋은 친구가 되려는 노력은 없이, 좋은 친구가 없다고 불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에게 ‘짤’ 하고 나타나는 것으 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친구 관계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듯이 먼저 다가서서 마음을 열어 보이며, 그들을 먼저 도움으로 ‘그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 어 더 많은 복을 받게 하려는’ (요15:16) 진심어린 마음으로 대할 때, 즉 내가 상대의 복이 되어주려 할 때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가 있는 사 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혹 세상에서 그런 친구를 만나지 못했더라도 너무 실 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이제부터’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 하 셧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이 큰 힘이 되는 것은 주님은 세상 친구와 달리 금생 너머 내세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지 (선교사)

충성1속 (평양과기대-고동훈)	충성2속 (도미니카- 피터정)	충성3속 (아틀란타- 다니엘양)
민음1속 (중국- 장은광)	민음2속 (쿠바- 김기헌)	민음3속 (카자스탄- 양재성)
민음4속 (이라크- 손기주)	온유1속 (니카라과- 김향자)	온유2속 (말레이시아-김시은)
온유3속 (아리조나- 이영호)	소망1속 (니카라과- 김규현)	소망2속 (볼리비아- 김영모)
소망3속 (키르기즈스탄-임다윗)	사랑1속 (태국- 이우현)	사랑2속 (터키- 송정렬)
은혜1속 (하이티2- 정 광)	은혜2속 (하이티- 김승돈)	